

# 헐·압·업·워~ 컬링, 이제 형·언니가 간다

〈컬링 용어〉

남 4인조 내일부터 예선전  
여자 대표팀 모레 첫 경기  
부부·자매·동창 '가족애' 푼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경기일정(13일)

오전 11:30 남자복합 김동우	오전 10:00 여자 하프파이프 권선우
오전 1:00 남자 하프파이프 김효준, 권이준, 이광기	오전 1:00 남자 하프파이프 김효준, 권이준, 이광기
오전 5:30 여자 스피드클래스 주혜리	오전 6:05 남자 스피드클래스 김마그너스
오전 7:00 여자 500m 최민정	오전 7:26 남자 1,000m 서이라, 임효준, 황대현
오전 8:32 남자 5,000m 계주 서이라, 임효준, 황대현, 김도겸, 박윤기	오전 7:30 여자 1인승 이일민, 프리슈, 성은령
오전 8:00 남자 1,500m 김민석, 주형준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합뉴스



지난 10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 5차 예선 대한민국과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장혜지(왼쪽)가 던진 스톤을 이기정이 스위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은 충분히 해낼 것이다”, “언니들은 좀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열기를 한껏 띄운 믹스더블(혼성 2인조) 장혜지-이기정은 한화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퇴장하면서 “형·언니들에게도 응원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컬링대표팀의 막내인 장혜지-이기정은 비록 믹스더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남녀 4인조 컬링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남자컬링 대표팀은 오는 14일, 여자컬링 대표팀은 오는 15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올림픽 예선 첫 경기에 나선다.

8팀이 겨룬 믹스더블과 달리 남녀 4인조 컬링은 각 10팀이 예선에서 대결한다. 예선은 출전한 모든 팀과 한 번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위 4위에 들어야 준결승(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남자컬링은 김장민 스킵(주자)을 필두로 성세현(서드), 오은수(세컨드), 이기복(리드), 김민찬(후보)이 한국 남자컬링 최초로 올림픽에 출격한다. 여자컬링은 김은정 스킵을 내세워 김경애(서드), 김선영(세컨드), 김영미(리드), 김초희(후보)가 한국 최초 올림픽 메달을 위해 푼뜰 뭉쳤다.

여자컬링은 모두 김 씨에서 ‘팀 킵’ 자매들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김영미와 김경애는 친자매다. 김은정과 김영미, 김경애와 김선영은 의생여고 컬링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동창·동문으로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남자컬링의 이기복은 믹스더블 이기정

의 쌍둥이 형이다. 남자컬링 김민찬은 여자컬링 김민정 감독의 남동생이자 믹스더블 장반석 감독의 처남이다. 김민정 감독과 장반석 감독은 부부다.

4인조 컬링은 세계의 벽이 상당히 높다. 특히 캐나다의 강세는 4인조 컬링에서 더욱 거세다.

캐나다는 컬링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5회 연속으로 올림픽 메달을 가져간 유일한 국가다. 2014 소치 올림픽에서는 남녀 동반 금메달을 휩쓸었다. 올해도 세계컬링연맹(WCF) 랭킹 남녀 1위를 달리는 캐나다는 올림픽 2회 연속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 여자컬링 세계랭킹은 8위, 남자컬링은 세계랭킹 16위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동반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무대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여자컬링 대표팀은 지난날 캐나다에서 열린 월드컬링투어 ‘메리디안 캐나다 오픈 그랜드슬램 오브 컬링’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 동메달을 수확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남자컬링 대표팀도 지난해 11월 월드컬링투어 그랜드슬램 대회인 ‘부스트 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경쟁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 평창에 간 스타들

### 김연경 쇼트트랙 관람 후 스노 발리볼 이벤트 참가

“배구 여제” 김연경(중국 상하이·사진)이 짧은 휴가를 강원도 강릉, 평창에서 보낸다. 김연경은 13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중국 무대로 진출한 김연경은 현지에서도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연경이 팀에 17년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선물하면서 상하이에 ‘배구 한류’가 불었다.

14일에는 평창으로 이동해 스노 발리볼(Snow Volleyball) 이벤트 경기에 참가한다.

오스트리아 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을 통해 김연경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연경은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흔쾌히 허락했다.

스노 발리볼은 말 그대로 ‘눈밭에서 펼치는 배구 경기’다.

아직 중국리그 일정이 끝나지 않아, 김연경은 부상의 위험이 없는 수준에서 이벤트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김연경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린다.

타리그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

승을 선물하면서 상하이에 ‘배구 한류’가 불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위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연경은 짧은 휴가도 ‘한국 스포츠’를 위해 쓴다.

김연경은 2월 10일 장수와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2-3로 아쉽게 패한 뒤 휴가를 얻었다.

일본으로 건너가 JT마베라스 시절에는 함께 된 동료로 만난 김연경은 13일 입국해 ‘평창올림픽 일장’을 소화한다. 김연경은 17일 다시 중국으로 떠나 24일 장수와 플레이오프 2차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 사격 진종오 하키센터서 안내 자원봉사

사격 ‘황제’를 넘어 ‘신’으로 불리는 진종오(39·KT·사진)한테 올림픽은 언제나 피 말리는 승부의 현장이었다. 진종오는 2004년 아테네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하계올림픽에 총 4차례 출전해 무려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런 진종오는 요즘 특별하고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자 ‘스페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해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11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관객들에게 자리 등의 안내를 해주는 자원봉사를 한 진종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한테 스페셜 자원봉사자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다”면서 “‘스페셜’이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하는 역할은 똑같다”며 웃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위촉한 ‘스페셜 자원봉사자’는 스포츠 스타와 정·관계 인사, 대학 총장, 다문화·이산가족·저소득층 국민 등 총 39명이다.

진종오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10일 관람객으로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연합뉴스



임효준이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최초의 금메달을 따냈다.

자분하게 얘기하던 진종오의 목소리톤은 “제가 올림픽에서 경기를 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지켜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이 응원해주는 거였구나!’ 싶으면서 감회가 새롭다. 정말 뭉클했다”며 감자기 높여줬다.

운동복 대신 자원봉사자 복장을 하고 현장을 누비니 올림픽을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지는 느낌이다.

진종오는 “올림픽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다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를 즐기면서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지 않나?”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18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커운 어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기화-새시풍속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풍습

### 우리도 가운 만들까?

고흥어머님이 신을 물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충훈의 꿈의 여행에 깊고 아름다운 검무는 숲 독일 블랙 포레스트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푸른 꿈이 자라는 사유의 정원 '부산 인디고서원'

여행이 만난 이 사람

화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영화배우 신성일 KIA타이거즈 안방 주역으로 성장한 포수 한승택

## 매망 초대석

### ‘광주의밤 달턴’ 작곡가 박문욱

“통기타 40년, 광주가 나의 음악”

- 기화-광주둘리 다시보기② 풀리와 광주읍성
- 광주읍성 이해할 때 1차 풀리 의미 살아난다
- 공립미술관의 길을 본다④
-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④ 신석정 시의 심지를 만나다 석정문학관
- 전시 리뷰 마리 로랑생-색채의 황홀
- 정문수의 유쾌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의 사진가 브래쇼 Vs. 토스카니
- 문화 화제 2018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이제 시작의 문을 열었을 뿐이죠”
- 남만 다도해 꿈꾸는 섬들의 고향 신안 新安
- 친가지 즐거움 만끽
- 오복과 느낌의 행복
- 찰진 맛, 흑신도 품이

배국남의 대중문화 X퍼알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척시 갈담마을 -안산 대부도 고향부리 마을